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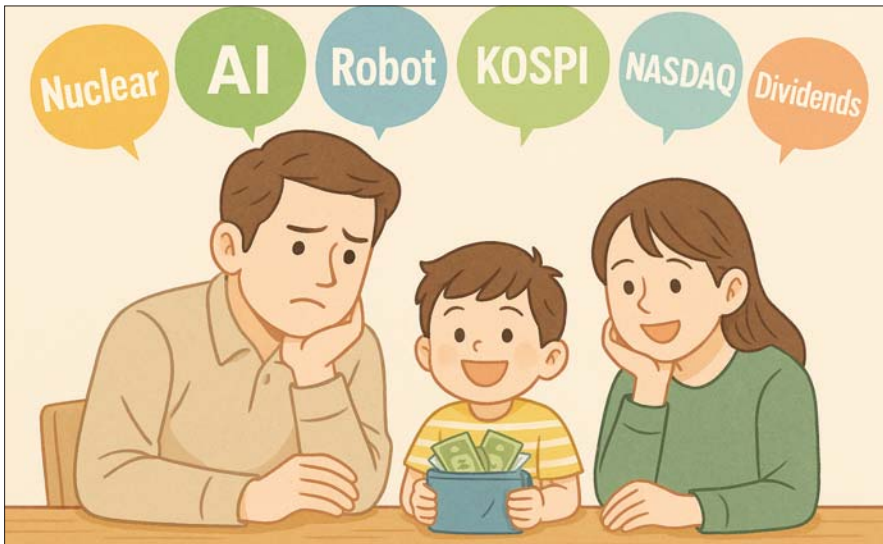
“전력·방산 구조적 성장… ‘꼬마 개미’ 용돈 투자로 딱”

자녀의 첫 ETF 추천

“수익보다 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주식 관찰습관이 투자감각 키워
美 AI·로봇 관련 ETF상품 제안”

“시아머니게서 주식 사주라고 추석 용돈을 (손자의) 증권계좌로 보냈다고 하시네요.”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주부 박모(37)씨는 올해 초 여섯 살 아들 명의로 주식계좌를 열었다. 아들의 세뱃돈 등을 모아 온 예금통장을 해지한 뒤 삼성전자·신한지주·현대자동차 등 우량주와 상장지수펀드(ETF) 중심으로 800만원어치를 사들였다. 8개월 사이 전체 수익률은 50%를 넘었다. 그는 “쥐 꼬리 이자가 붙는 예금보다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 싶어 주식과 관련 상품으로 돌아섰다”며 “10년간 잘 굴려서 대학 학비에 쓸 상품을 고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자녀들이 모은 용돈을 굴리는 마마·파파개미(엄마·아빠 주식 투자자)



Chatgpt로 생성한 ‘아이 용돈을 어떻게 투자할지 고민하는 부모’ 이미지.

가 늘고 있다. 하지만 50% 수익을 낸 박씨처럼 운이 좋은 경우는 드물다. 안전과 수익 두 토끼를 쫓는 방안은 없을까.

14일 메트로경제는 6개 자산운용사(미래에셋·한국투자신탁·KB·신한·NH아모디·타임폴리오) 본부장에게 ‘자녀에게 사줄만한 ETF’를 추천받았다.

김승철 NH아모디자산운용 본부장은 “주식으로 수익을 얻는다고 보다 학

습의 기회로 삼는 게 중요하다”며 “국내 주식형과 해외주식형을 한두 개씩 골라 직접 관찰하는 습관이 투자 감각을 키운다”고 조언했다. 그는 HANARO 원자력iSelect, HANARO 글로벌피지컬 AI액티브 등을 언급하며 “AI 시대엔 전력과 방산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장 테마에 초점을 맞춘 ETF로는

미국 시장의 AI·로봇 관련 상품이 꼽혔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본부장은 “초장기 투자엔 AI 성장 산업이 가장 적합하다”며 SOL 미국S&P500과 SOL 미국AI반도체 칩메이커 ETF를 제안했다.

노아름 KB자산운용 본부장은 “성장엔 인컴(현금흐름)을 더하면 장기 보유가 수월하다”며 RISE 미국휴머노이드 로봇 ETF와 RISE 미국AI밸류체인데일리고정커버드콜 ETF를 추천했다.

배당형ETF를 통한 ‘안정적 수익’ 전략도 눈에 띈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은 “성장성과 안정성을 함께 가져가는 조합이 아이 투자에 적합하다”며 TIGER 반도체TOP10,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를 꼽았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본부장은 “아이의 첫 투자는 잃지 않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KODEX 미국나스닥100,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ETF를 언급했다.

소액 투자라도 꾸준히 쌓이면 의미 있는 자산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

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본부장은 “작은 돈이 모이면 큰 자산이 된다”며 ACE 글로벌반도체TOP4Plus SOLACTIVE, ACE 미국빅테크TOP7 Plus를 제안했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본부장은 “단기 유행보다 꾸준히 오를 시장형 ETF가 낫다”며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ETF를 꼽았다.

김남호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본부장은 “요즘은 현금 대신 ETF를 증여하는 부모도 있다”며 “매달 0.5% 수준의 월배당을 지급하는 TIMEFOLIO Korea 플러스배당액티브ETF로 아이에게 ‘저축 이상의 투자 경험’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본부장은 장기 투자할 땐 좋은 주식을 싼값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교육과 돈 굴리는 습관을 기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본부장들은 공통적으로 “아이들의 첫 투자는 단기 차익보다 장기 성장성과 안정성의 균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61% 급등… 韓 증시, 신흥시장 투자의 핵심”

프랭클린템플턴

“반도체 중심 기술섹터, 증시 떠받쳐
통신·기술·산업 비중 고르게 분산”

글로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은 14일 한국을 신흥시장 투자의 핵심 국가로 평가했다.

프랭클린템플턴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신흥시장 주식이 올해 들어 달러 기준 28% 이상 상승하며 S&P500지수(14%)의 2배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더 약세, 정책 변화, 선진국 대비 견조한 성장세, 글로벌 자본 흐름 변화 등이 반등을 이끈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23일 기준 한국과 중국 증시가 각각 약 61%, 37% 상승을 기록하며 신흥시장 랠리를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글로벌 메모리 칩 수요가 회복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 기술 섹터의 반등이 증시를 떠받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프랭클린템플턴은 “반도체 제조 분야의 선도적 지

위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가 모멘텀의 핵심 동력”이라며 “상위 3대 섹터인 통신, 기술, 산업이 각각 약 20%의 비중으로 고르게 분산돼 있으며, 금융과 소비재 기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산업 다각화를 잘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성장축을 갖춘 구조적 강점이 돋보인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방산 부문에서 한국의 위상이 급부상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방산 수출액이 2010년대 초 약 30억달러에서 2022년 173억달러로 급증하며 한국은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에 올랐다. 프랭클린템플턴은 “현재 한국의 방산 역량이 단순 부품 제조를 넘어 전자, 포병, 항공기, 미사일 등 완제품 시스템을 수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선업 부문에서도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의 ‘메이드 인 아메

리카(Made in America)’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인 협력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짚었다.

K-뷰티와 K-컬처 등 한국의 소비재 및 문화 수출 역시 한국의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은 55억 1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다. 그 결과 한국은 미국을 일시적으로 제치며 프랑스에 이은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에 오르기도 했다. 더불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의료관광도 한국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분야로 꼽았다.

디나 팅(Dina Ting) 글로벌 인텍스 포트폴리오 운용 총괄은 “신흥시장이 다시 글로벌 성장의 주도권을 되찾으면서 신흥시장 투자 여부보다 어떤 신흥시장국에 투자하느냐가 관건이 됐다”며 “그중에서도 한국은 글로벌 산업, 문화, 헬스케어가 교차하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박진호 NH아모디자산운용 주신운용부본부장이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시드머니 250억… 정책수혜 상품 준비”

NH아모디자산운용, 기자간담회
“AI·자본시장·친환경 대전환 국면
투자자에 수혜 돌려주는 게 목표”

NH아모디자산운용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대전환에 올라타라”며 새로운 펀드를 내놴. 정부가 코스피5000 시대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지금, AI(AI·자본시장(CX)·친환경(GX) 등 3대 대전환이 불러올 산업 재편의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길정섭 NH아모디자산운용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국가적 비전으로 제시하며 한국 자본시장의 도약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협상호금융,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이 총 250억원의 시드머니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들 자금을 직접 투입해 책임운용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호 NH아모디 주식운용부문장은 “한국은 AX(AI Transformation), CX(Capital Transformation), GX

(Green Transformation)라는 세 축의 대전환 국면에 진입했다”며 “규제 완화와 인프라 확충 정책으로 기업 성장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 산업의 구조적 성장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핵심 투자 분야는 ‘성장주도 산업’이다. AI 반도체 및 인프라, 방산, 조선, 에너지,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기업들이 대상이다. 이 중 AI 부문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패키징·고성능서버기판(MLB) 제조사, 전력 인프라에서는 변압기·차단기·AI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된다.

자본시장 선진화 수혜주로는 상법 개정·배당 확대 등 거버넌스 개선으로 기업가치 재평가가 기대되는 대기업 지주사와 계열사들을 꼽았다.

NH아모디운용은 이번 펀드의 강점으로 ‘팀 기반 액티브 운용’을 내세웠다.

박 부문장은 “리서치와 운용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모델 포트폴리오로 시장 변화에 대응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전환의 수혜를 투자자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잔고 50조 돌파

투자 평가이익 15조 달해

미래에셋증권은 자사의 해외주식 잔고가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말 4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이뤄낸 기록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들이 해외주식 투자로 큰 이익을 거둔 것이 핵심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달 10일 기준 해외주식 잔고 51조8000억원 가운데 고객들이 투자를 통해 거둬들인 평가이익(세전)이 15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올해만 해도 8조원 이상의 고객 수익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성과를 기반으로 한 해외 자산 증대의 선순환이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 기술주가 핵심 전략으로 부각되는 등 글로벌 투자환경이 변화하는 데 발맞춰 중국 혁신기업 비중을 확대하는 글로벌 자산배분전략을 구사한 것이 수익률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홍콩 항셍테크는 연초 이후 44.8% 급등해 미국 나스닥 상승률

(19.2%)을 크게 웃돌았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 2% 이상 변동한 종목 등을 자동 선별해 관련 뉴스를 요약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이슈체크’ 등 AI 설루션과 디지털 자산관리 인프라를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고객 수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미래에셋증권은 자평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에서의 고객 성과는 미국 중심 투자를 기반으로 중국 혁신기업에 대한 전략적 자산배분과 AI 자산관리 강화가 맞물린 결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혁신기업과 성장 시장을 반영한 자산배분 전략을 지속 확대하며 고객 수익률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